

박해일 “물의 기운으로 작품 임해”

‘한산:용의 출현’ 이순신 역
“실존영웅 연기 부담 매우 커”

“제가요? 왜요? 제가 장군감입니까?” 영화 ‘한산:용의 출현’에서 이순신 역을 맡은 배우 박해일은 김한민 감독에게 작품을 제안받았을 당시 이렇게 되물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당황스럽고 의아했기에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했다”고 회상했다. “감독님이 웃으시면서 ‘네가 최민식 선배 같은 그런 장군감은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번 영화에서 보여줄 이순신은 주도면밀하게 전략을 짜서 수군들과 함께하는, 압도적 승리의 쾌감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장수이자 덕장이라고 설명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27일 개봉하는 ‘한산’은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한산해전을 그렸다. 박해일은 실존 영웅 이순신을 연기한다는 부담이 매우 컸다고 회상했다. 그는 “흥행 성적에 대해 고민할 겨를도 없었을 정도로 이순신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해야 한다는 부담이 엄청났다”고 말했다. “첫 촬영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납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판옥선 위 지휘하는 공간에 혼자 있는데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큰 짐을 어깨에 짊어진 느낌이었죠. 제가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단단한 산이 돼



영화 ‘한산:용의 출현’ 박해일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서 작품 속 모든 캐릭터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한산’은 국내 최고 흥행작 ‘명량’ (2014)의 후속작이자 프리퀄이다. 배우 최민식이 연기한 ‘명량’ 속 이순신은 결단력과 용맹함이 돋보이는 리더였다면 ‘한산’ 속 이순신은 신중한 전략가 면모에 초점을 맞췄다. 박해일은 “최민식 선배와 저라는 배우는 다른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작품을 대

했다”면서 “‘명량’과 결을 똑같이 가져갔다면 저는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제일 차분한 방식으로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생각했어요. ‘명량’ 속 이순신이 불같은 기운으로 딱 버티고 전투에 임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번에는 모든 배우들이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물의 기운으로 작품에 임하려 했습니다.” ‘한산’ 속 이순신은 ‘명량’에 비해 분량과 대사로 적고 극적인 감정변화도 없다. 박해일은 “이순신 장군이 드러나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장면에서도 그의 그림자가 계속 구현됐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제가 굳이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하면서 카리스마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지락을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려 했죠.” 이순신을 ‘수양을 많이 쌓은 선비’라 정의한 그는 연기를 위해 ‘마음 수양’에 힘썼다고 했다. “이순신 장군님이 수양을 많이 쌓은 군자이자 도인 같은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수양부터 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인물처럼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관객분들이 당연히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보실 테지만 한편으로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보셨으면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캐릭터가 해외에 많이 알려졌으면 하거든요. 전 세계 관객이 좋아할 만한 작품으로 ‘한산’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박성용 “눈물 날 만큼 힐링이었어요”

채널A ‘배우는 캠핑장’

배우 박성용, 신승환, 홍종현이 캠핑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잔잔한 사람 이야기를 나눈다. 배우 박성용은 25일 밤 10시 30분 첫방송된 ENA·채널A 예능 ‘배우는 캠핑장’ 제작발표회에서 “신승환 씨가 마지막 날 개별 인터뷰에서 울었는데 사실 나도 인터뷰 중에 울었다”며 “(프로그램이) 그만큼 큰 힐링이었다”고 밝혔다. ‘배우는 캠핑장’에서 배우 3명은 캠핑장 사장으로 변신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캠핑장 운영 수익을 모아 전액 기부한다. 배우들은 ‘고기 구워드릴게요’, ‘뒷정리 해드릴게요’ 등 약 10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들과 교류하고 그 대가로 소소한 금액을 받는다. 박성용은 “손님들에게 제 본모습을 거리낌 없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행복했고 캠핑장을 찾아오신 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정말 큰 힐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정은하 PD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는 캠핑장’이라는 이름은 배우들이 운영하는 캠핑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손님과 사장님이 서로의 인생을 배운다는 이중적인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PD는 배우들의 반전 매력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주로 악역을 맡아온 박성용은 귀



ENA채널·채널A ‘배우는 캠핑장’ /ENA채널·채널A 제공

여운 만형으로, 신승환은 남다른 친화력을 자랑하는 ‘소통왕’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막내 홍종현은 형들을 사로잡을 카리스마를 뽐낸다고 한다. 신승환은 “저랑 (박성용) 형이 협약한 첫 인상으로 손님들을 찾아낼까 봐 처음에는 무조곤 홍종현이 손님을 맞았다”고 웃었다. 이어 “총 일곱 군데의 다른 캠핑장을 찾아갔는데 하루 이틀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치동화 속 마법의 마을 같았다”며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그런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총무를 맡은 홍종현은 “전역하고 오랜만에 방송에 복귀했는데 ‘진짜 홍종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님들과 삼십 분이든 한 시간 이든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고기 구워드릴게요’ 서비스가 제일 재밌었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양심과 욕망 사이 ‘클리닝 업’ 3%로 종영

인생 역전 꿈꾸는 여성 연대

증권사 미화원들이 내부자 거래 정보를 빼돌려 인생 역전을 노리는 범죄 드라마 ‘클리닝 업’이 3%대 시청률로 종영했다. 2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0분 방송된 JTBC 주말드라마 ‘클리닝 업’ 최종회 시청률은 3%(비지상파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최종회에서는 돈에 대한 욕심이 불러온 비극을 직면한 미화원 어용미(염정아)가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내부 정보 거래자 중 우두머리인 송우창(송영창)을 척결하는 이야기가 긴박감 있게 그려졌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대했던 어용미와 안인경(전소민), 맹수자(김재화) 3명은 모두 바라던 꿈을 이룬다. 꽃가게 사장이 된 어용미는 전남편에게 맡겼던 두 딸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맹수자는 늘 품고 다니던 여권으로 여행을 떠난다. 안인경은 커피 트럭 사장님이 된다. ‘클리닝 업’은 세 명의 여성 미화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여성 중심 서사를 펼쳐냈다. 미화원이라는 이유로 의심을 피하거나 순간의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들은 통쾌함을, 연대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했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내공 있는 연기가 몰입감을 높였다. 염정아는 밍상이면서도 막상 미워할 수 없는 어용미 그 자체였고, 김재화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무시당하는 엄마의 서러움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연합뉴스



JTBC ‘클리닝 업’ /JTBC 홈페이지

수 없는 어용미 그 자체였고, 김재화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무시당하는 엄마의 서러움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연합뉴스

‘범죄도시3’ 크랭크인…이준혁·이범수 합류

시즌2 1,300만 눈앞

매출액 기준 역대 3위

마동석의 범죄액션 시리즈 ‘범죄도시 3’ 편이 지난 20일 촬영에 들어갔다고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가 25일 전했다. ‘범죄도시 3’은 한국에 넘어와 범죄를 일으킨 일본 야쿠자를 소탕하는 이야기다. 마동석이 연기하는 형사 마석도는 금천경찰서에서 광역 수사대로 소속이 바뀐다. 이에 따라 악당 캐릭터를 포함한 일부 출연진이 새롭게 합류한다. 윤계상·손석구의 뒤를 잇는 빌런은 이준혁(주성철 역)과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카(야쿠자 리키)가 맡는다. 금천경찰서 강력반장 최

귀화가 하차하고 광역수사대 반장 장태수 역으로 이범수가 출연한다. 김민재는 마석도의 오른팔 김만재 역으로 캐스팅됐다. 이밖에 전석호와 고규필이 신스틸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상용 감독이 2편에 이어 메가폰을 잡는다. 지난 5월 18일 개봉한 ‘범죄도시 2’는 전일까지 누적 관객수 1,268만 4,000여 명을 기록하며 두 달 넘게 상영 중이다. 2015년 개봉한 ‘암살’ (1,270만 명)에 이어 역대 박스오피스 13위에 해당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극한직업’ (2019)·‘명량’ (2014)에 이어 역대 3위에 올랐다. ‘범죄도시 2’의 전일까지 매출액은 1,312억여 원이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통합뉴스룸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세상을 건다스페셜 11:20 이슈 픽 쌤과 함께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불만인 아침 1부 8:10 해 불만인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오라차차 내 인생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미남당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꾸러기 식사교실 11:30 글로벌 동물 뉴스 11:45 프린세스 바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6:10 세계테마기행 7:00 뽀롱뽀롱 뽀로로 7:15 우당탕탕 은하인전단 8:00 당동명 유치원 8:20 한글왕사 아이아 9:05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 9:20 꼬미버스 타요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건축탐구 집 1:50 EBS 다크프라임 2:45 바닷가 사람들 3:35 안전채널e 3:45 지식채널e 4:05 영어스토리 타임 4:15 페피피 5:00 EBS 뉴스 5:45 출동! 슈퍼워즈 6: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6: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7:30 한국의 둘레길 7:50 극한직업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당신은 몰랐던 20대 이야기 2부 11:35 위대한수업 그레이트마인즈 11:55 클래식e
12:00 통합뉴스룸 1:00 올웨이즈 7000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국회 대정부 질문 4:00 시사견견 5:00 통합뉴스룸 5:30 동물의 왕국	12:15 개는 훌륭하다 1:50 영화가 좋다 3:00 KBS 뉴스타임 3:10 캐치! 티니핑 3:30 TV 유치원 4:00 세상을 건다 스페셜 4:30 박원숙의 같이 살다 5: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안싸우면 다행이야 1:50 2시 뉴스 외전 2:30 국회대정부 질문 3:55 기분 좋은 날 4:55 5MBC 뉴스 5:10 호적메이트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50 신발벗고 돌싱포맨 2:00 뉴스리빙 4:00 좋은아침 스페셜 5:00 SBS 오뉴스 5:50 TV 동물농장	
6:00 6시 내고향 7:00 통합뉴스룸 7:40 이웃집 찰스 8:30 오라차차 내 인생 9:00 통합뉴스룸 10:00 시사기획 창 10:55 더 라이브 11:30 통합뉴스룸	6:30 2TV 생생정보 7:50 황금가면 8:30 박원숙의 같이 살다 9:50 미남당 11:00 오케이! 오케이!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비밀의 집 7:40 MBC 뉴스데스크 9:00 호적메이트 10:30 PD 수첩 11:30 100분 토론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세상에 이런일이 10:00 신발벗고 돌싱포맨 11:30 DNA 싱어	

오늘의 운세		7월 26일 (음력 6월 28일)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子	48년생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 60년생 부부간의 다툼이 예견되니 조심하라. 72년생 마음에 없는 말은 하지말라. 84년생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	 辰	52년생 순리를 따르면 후회할 일이 없다. 64년생 기대와 다른 결과가 실망스럽다. 76년생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88년생 나갔던 목돈이 돌아오는 날이다.
 丑	49년생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 61년생 하기 싫은 일도 가끔은 해야 한다. 73년생 성급한 행동이 화를 부른다. 85년생 눈 뜨고 도둑맞는다.	 巳	41년생 평온한 가운데 폭풍이 몰아친다. 53년생 빈민과 불안이 가득하다. 65년생 이성 친구와의 갈등을 조심하라. 77년생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寅	50년생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긴다. 62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는 날이다. 74년생 말 한 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 86년생 하루가 시원하게 뚫리는 날이다.	 午	42년생 불편했던 대인관계가 개선된다. 54년생 천운이 열리니 기분 좋은 일이 있다. 66년생 사업가는 기대되는 좋은 일이 있다. 78년생 행운의 여신을 만난다.
 卯	51년생 지난 일은 잊고 새 출발을 하라. 63년생 선심을 베풀고 도둑을 먹는다. 75년생 과로를 피하고 술과 음식을 절제하라. 87년생 직장에서 인정받는다.	 未	43년생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55년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67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타협하라. 79년생 하늘의 보살핌이 있으니 걱정을 말라.
		 申	44년생 뜻만 높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56년생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아라. 68년생 대업을 위해 작은 욕심은 버려라. 80년생 재물이 나갈 운세이니 조심하라.
		 酉	45년생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57년생 능력은 향상되고 결과도 기대 이상이다. 69년생 큰 재물이 들어오겠다. 81년생 생지나친 자기 자량을 자제하라.
		 戌	46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 58년생 되는 일이 없는 날이니 자중하라. 70년생 조용하고 편안한 하루를 보낸다. 82년생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시기이다.
		 亥	47년생 뜻밖의 술과 고기가 생긴다. 59년생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라. 7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83년생 위기가 가면 기회가 오는 법이다.